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변금선** · 이혜림***

요약

이 연구는 2020년 19~34세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생애경험-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 (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19~34세 청년의 85.7%가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만 30~34세와 25~29세 여성의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본인의 획득지위(교육, 고용상태 등)를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청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밝히며,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불평등 완화와 함께 성인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청년, 생애경험, 사회적 불안 인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청년정책

* 본 연구는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2020)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일부를 전면 재구성한 것으로, '2022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미있는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gsbyun@si.re.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hyerimm@gmail.com)

1. 들어가며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다양하다. '90년대생' 'MZ세대' 담론에서 청년은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 기술의 진보 속에서 성장한 희망 가득한 '미래세대'이며, 자신의 욕구와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세대이다(박민진, 민보경, 이민주, 202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청년은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세대이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미래가 봉쇄된 '락다운 세대(봉쇄세대)'(ILO, 2020; 변금선·이혜림, 2022 재인용), 그리고 생존 불안에 쫓기는 각자도생의 세대이다(김홍중, 2015). 이를 반영하듯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은 88만 원 세대, 3포세대, N포 세대 등 청년이 마주하는 위기와 불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동안 청년의 불안은 생애주기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청년기의 보편적 특성이자, 개인차원의 불안으로 설명되어왔다. 생애단계에서 청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 놓인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이다. 이 시기에 청년은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로 불안정성(instability)이 높고 불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Arnett, 2004).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사회적·경제적 독립, 인간관계 형성, 이성 교제 등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확실한 삶의 변화는 때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불안감을 높이기도 한다(Furlong, 2009; Duffy, Twenge, & Joiner, 2019).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의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불안이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면서 청년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들은 현재 청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노동시장 분절과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일자리 감소,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안정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이 지연되도록 만들었다(박미희, 2017; 변금선, 2018a).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 없이 사회와 단절된 미취업 상태의 연장은 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불안을 가중시켰다(우아영, 윤연숙, 2020).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청년세대가 희생자인 비극적 사회적 재난의 반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층의 불안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와 사회적 단절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세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의 불안은 청년 내부의 불평등, 격차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은 경제적 어려움,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 재난, 미래의 변화 등 사회적 불안을 촉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노출된다.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수준과 질은 남녀별로, 세대별로,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보유한 사회적 자원에 따라 다르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청년의 사회적 자원은 청년이 속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부모 세

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 세대인 청년세대 내 경제적 여건의 격차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심리·정서적 격차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다(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변금선, 김기현, 2019). 이는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소’ 중 부모의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가장 높았던 점은 청년이 인식하는 양극화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까지 좌절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과 그 인식의 격차에 주목한다. ‘사회적 불안’은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에 관한 청년의 주관적 평가이자, 사회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개인의 불안 인식이다. 현재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은 변화한 사회적 위험과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이다.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은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청년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삶의 불안을 완화하고 있는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생애주기적으로 청년은 부모 등 원가구에서 성인으로서 자립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다. 노동시장 불안정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구직기간의 연장과 이로 인한 자립의 지연 등 생애과정 변화는 청년기의 사회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변금선, 이혜림, 2022; 유민상, 2022). 하지만 그간 청년은 근로연령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¹⁾. 현재 성인 초기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고려할 때,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청년기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변금선, 2022; 유민상, 2022).

이와 더불어 청년의 사회적 불안은 청년기 이후 미래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앞으로 청년이 될 다음세대와 부모세대의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는 청년의 사회적 불안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사회공동체의 연대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격차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진단하고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청년 연구

1) 2020년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을 위한 지원이 고용, 교육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조사시점은 2020년이므로 현재 청년정책 확대에 인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청년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복지정책은 가족돌봄 청년, 은둔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특정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개별화된 사업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보장정책의 분절성을 높이고 청년정책 확대가 사각지대를 심화하는 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는 청년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행과정에서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거나(박나리, 김교성, 2021; 박미희, 홍백의, 2018; 변금선, 2018; 이승윤 외, 2017, 이용호, 이원익, 2022),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Liu, Zhang, Wong, & Hyun, 2020; Mahmoud, Staten, Hall, and Lennie, 2012; 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구혜란, 구서정, 2019; 김정숙, 2018;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이들 연구는 청년 개인이 삶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을 직접 다루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과 그 격차를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단일집단으로 청년세대 관점에 가려진 청년의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애과정의 계층화에 주목하여, 청년 계층별로 사회적 불안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생애과정의 계층화는 생애과정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와 개인화(individualization)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리함(disadvantage)이 특정 계층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청년 삶의 개인화는 청년기의 위험이 보편화 되도록 만들었다. 특정 연령에 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직장에 취업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애과정의 표준모델이 약화되고, 행위자로서 개인의 선택 기회가 커지면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살아가는 개인의 위험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생애과정의 개인화는 사회적 위험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공적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에게 부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불안 인식이 청년이 위치한 계층,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과 박탈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불안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러한 생애 경험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화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배경

1) 사회적 불안의 정의와 청년의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은 일상적 용어이나 사회적 불안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을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적, 정서적 불안의 사회

적 집합으로 설명하거나, 사회적 불안 자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보다는 측정 지표의 개발을 통한 조작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정신의학, 심리학 관점에서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은 개인이 부적응 상황에서 느끼는 불쾌한 정서로 병리학적 현상을 의미한다. 국가의 불안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불안(social unrest)은 국가, 정부 등 기존 제도나 시스템에 반해 발생하는 시위, 폭동 등을 의미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사회불안지표(social unrest index)는 국가적 차원의 소요나 집회, 시위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개인이 인식하는 불안의 결과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인지하고 경험하는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불안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인철과 김범준(2005)은 사회적 불안이 신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위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뜻하는데, 사회가 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사회 구성원의 불신과 불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조권중(2014)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은 개인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되어 불안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유발한 불안, 불만, 분노는 집회나 시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전이되고 확산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을 개인의 병리적 상태, 혹은 국가의 불안정 수준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의 불안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에서는 불안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한다. 불안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기질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다수가 경험하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실태를 연구한 이상영 외(2015)는 불안을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거나 원치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앞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느끼게 되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차미란, 김효진, 2015, p.15).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사회적 불안을 살펴본 이현주 외(2019)는 사회적 불안을 “사회 체계적 요인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지속해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은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 사회경제적 불안 혹은 사회적 불안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다. 이는 청년 개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정서적 불안이 아니라, 인지된 사회적 위협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 체계적 요인에 의한 불안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 인식은 사회적 위협 수준을 보여주는 대리지표이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조직, 사회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chrother, Jovanovic, and Renn, 2014). 즉, 사회적 불안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의 불안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이 늘어난다면, 공동체의 연대감과 소속감이 약화되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회 재생산에 참여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즉, 청년의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삶의 불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생애과정 변화와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세대내 격차

(1) 청년세대의 동질성과 이질성

최근 수년간 청년의 성인으로의 전환이 장기화되고, 삶의 개별화로 인해 이행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Krahn et al, 2018). 세대론적 관점에서 청년세대²⁾는 생애주기상 핵심 근로연령기에 놓인 동일집단이자, 위기와 불안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계층적 구조에 따라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다. 생애주기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모든 청년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의 결과는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청년집단 내 이질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의 이질성은 생애과정 관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서 사회적 불안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애과정을 형성하는 역동적 행위자이다(Elder & O'Rand, 1995; 변금선, 2018a, p.29 재인용). 역사적, 사회경제적 환경

2) 세대(generation)란 출생코호트로서 출생 시기가 유사한 사람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연령 변화에 따라 경험하는 인식의 시간적 변화, 즉, 연령 효과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홍, 2003). 세대 연구는 코호트 효과로 발현되는, 동기간 내 출생한 개인들의 세대 내 높은 수준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전제로 하며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이 코호트 자체의 경험과 독특한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본다. 특히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를수록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은 한국 사회 세대론의 유용성을 보여준다(은석, 안승재, 함선유, 홍백의, 2018). 세대는 학술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용어이기도 하다. 세대는 민주화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386세대, 88만원 세대 등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2030세대, 5060세대, 실버 세대 등 나이와 생애단계로 구분되기도 하며, 신세대, 디지털세대, MZ세대 등 문화적 행태와 특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박재홍 2010).

속의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에 관한 인식은 사회변화를 투영해 나타나고, 개인의 인식과 생애과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게 된다.

청년세대는 역사적 시간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출생코호트’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령집단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 차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출생 시점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사건의 영향과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시기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생애주기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은 성인기의 건강, 교육성취, 고용, 사회적 관계에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Duncan et al., 2011). 개인의 생애는 한 시기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며, 특정 생애 사건의 영향은 이후 생애에도 유지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일례로 유년시절에 경험한 경제공황과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Golden, 1999; Elder, 2018)이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Hechman, Stixrud & Urzua, 2006)의 경험은 이후의 교육적 결정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유년기의 경제적 경험은 성인기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스트레스 이론에 기초한 중단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성인이 되는 여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Lundberg & Wuermli, 2012; Mossakowski, 2015).

(2) 생애과정 변화와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한편, 생애과정의 변화는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산업사회 이후 인간의 생애는 ‘교육-완전고용-은퇴’로 표준화(standardization)되었으나 고성장 시대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는 개인의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를 초래했다(Marshall, & Mueller, 2003; Settersten, 2003).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며, 소수 개인에게 일어났던 사회적 위험이 다수의 사람에게 확대되고,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 논의에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위험은 보편화되었으며, 통제 불가능하고 측정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평등하게 확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Beck, 1992). 이와 관련하여 생애과정 불평등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지만, 그 위험의 영향은 계층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Elman & O’Rand, 2004; Lui, Chung, Wallace, & Aneshensel, 2014) 계층구조에 따른 전통적인 사회불평등의 패턴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Blossfeld et al., 2008).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계층화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생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불안을 인식한다. 즉, 현

재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은 청년이 되기 이전 시점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결과를 결정하는 개인이 위치한 기회구조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위협의 영향은 공적 안전망이 본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더욱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사건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 역사적 맥락,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양상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고용 불안정이나 우울, 공정성 인식의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 고용 불안정과 관련된 연구는 비정규직, 학교-노동 이행의 불안정성 등의 청년기 고용 불안정이 부모의 직업 지위, 교육수준, 소득계층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연아·정원오, 2016; 변금선, 2015; 2018). 우울과 관련해서는 가구빈곤이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거나(조혜정·염동문·권혁창, 2020),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이원진, 2010).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인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년의 계층에 따라 공정성이나 불평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희정, 2018).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과 영역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과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청년을 출생코호트로 구분할 때,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탈 경험은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애과정의 연속성과 누적성, 그리고 생애과정 계층화 관점에서 귀속지위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 청소년기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박탈 경험과 현재의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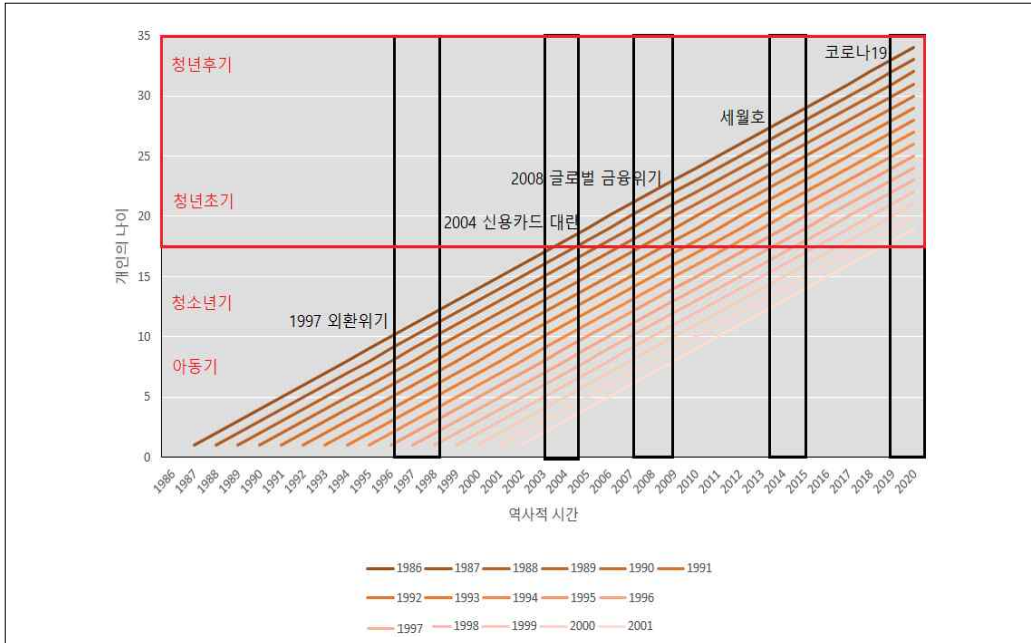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조사」

응답자 중 만19~34세 청년(1986~2001년생) 1,7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이현주 외(2019)의 연구에 따라 사회적 불안을 “사회 체계적 요인으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으로 정의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경험과 인식(생애사건 경험, 사회인식), 불안에 대처하는 대처 기제 및 매개요인(개인의 자원), 불안의 요인과 전반적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웹 기반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인구,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이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기준을 따른 것이다. 청년층의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을 만30~34세(1986년생~1990년생), 만25~29세(1991~1995년생), 만19~24세(1996년~2001년)의 세 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집단으로, 연령대에 따라 이행기 과업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19~24세 집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탐색하는 특성을 갖는다. 25~29세 집단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30~34세는 노동시장에 정착하거나, 결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인다.

[표 1]과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출생부터 현시점 나이까지의 역사적 시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세 집단은 각각 인생의 다른 시점에 생애 주요 사건에 노출되었고, 이들의 경험은 매우 이질적이다. 만30~34세 후기 청년은 1986~1990년생 출생코호트로 IMF 시기와 그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시기에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청년기를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여 이제 막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시기에 코로나19를 경험하였다. 만19~24세와 25~29세로 구분되는 20대 청년은 1996~2001년, 1991~1995년생으로 IMF 이후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코로나19로 신규일자리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 청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는 현재 청년세대로 호명되는 청년층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이 개인이 지나온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경험을 통해 이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2020년 현재 청년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1986~2020년)



자료 : Van Winkle and Fasang(2016)의 [그림 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1] 청년세대 출생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

| 역사적 시간 | 주요 사건 | 개인의 연령(출생연도) | | |
|-----------|-----------|---------------------|---------------------|---------------------|
| | | 30~34세 (1986~90) | 25~29세 (1991~95) | 19~24세 (1996~01) |
| 1988 | 1988 올림픽 | 0~2세 | 0세 | 0세 |
| 1997~1998 | 1997 외환위기 | 7~11세 | 2~6세 | 0~1세 |
| 2003~2005 | 신용카드 대란 | 14~18세 | 9~13세 | 3~8세 |
| 2008 | 글로벌 금융위기 | 18~22세 | 12~17세 | 6~11세 |
| 2014 | 세월호 | 24~28세 | 19~23세 | 13~18세 |
| 2020 | 코로나19 | 30~34세 | 25~29세 | 19~24세 |

주 : Elder and Pavalko(1993)의 [표 2]를 참고해 구성함.

2) 분석모형과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 인식에 관한 단일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 전혀 불안하지 않다’, ‘2. 별로 불안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불안하다’, ‘5. 매우 불안하다’,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 인식 문항에 ‘4.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불

안함' 집단으로, '1.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불안하지 않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층 중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규모와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집단 특성을 확인하였다.³⁾

한편, 사회적 불안 인식의 격차는 계층 간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사회계층(social strata)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층위를 의미하며, 인종, 성별, 연령 등 수평적 체계로서의 계층과 사회계급(social class), 직업과 소득계층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가족배경(family background) 등 수직적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계층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선천적 특성의 귀속지위(ascribed status, social origin)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이용해 성취하는 획득지위(성취 지위, achieved status)로 구분된다. 귀속지위는 획득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획득지위에는 개인의 순수한 능력, 노력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형과 유형의 자원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계층을 귀속지위적 성격을 가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측정하였다. 본인의 획득지위를 성취해 나가는 청년기의 특성상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종적 획득 지위라고 하기 어렵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이 많다는 측면에서 청년의 획득지위는 실제 본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귀속지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재산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수를 활용하였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양육자의 교육수준과 재산 수준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부모의 재산 수준은 '부모의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활용해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1. 하, 2. 중하, 3. 중간, 4. 중상, 5. 상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상(4. 중상, 5. 상), 중(3. 중), 하(1. 하, 2. 중하)로 변경하여 3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생애 경험은 분석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역사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정서적 어려움과 박탈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생애 주요 사건 경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청년 연령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은 청년의 직접경험이 아니라 부모 등을 통해 경험한 간접경험을 포함해 측정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박탈 경험은 만 12세 이후 건강, 돌봄, 주거, 교육의 영역에서 각각 박탈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물질적 결핍은 건강('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주거('돈이 없어서 집

3) 사회적 불안에 관한 인식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검증된 척도가 아니며, 단일척도로 불안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열 등급간 불안인식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불안하다고 인식하지 여부를 활용해 불안 인식을 분석하였다.

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교육(‘돈이 없어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3가지 영역과 가족 돌봄으로 인한 시간 박탈(‘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을 추가로 포함해 측정하였다.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 특성

[표 2]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체 대상 중 여성은 48.4%였으며, 25~29세와 30~34세 여성 비율은 48.4%, 50.0%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비중이 높았다.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거주자는 45.3%였으며, 25~29세의 광역시 거주 비중이 51.9%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도시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8.4%였으며 19~24세, 25~29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각각 1.5%, 10.2%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33.6%로 유배우자 비율보다 낮았는데, 결혼 후 바로 자녀를 갖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 좋음’과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9%였는데, 20대 이하는 다소 높은 편이었고, 30~34세는 34.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개인의 심리적 불안의 평균 점수는 1.9점이었으며,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구 내 지위가 가구주인 경우는 39.6%였다. 청년 중 가구주 비율은 20대 집단에서 매우 낮았는데, 취업이나 결혼 이전까지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부모와 동거 비율도 19~24세 84.7%, 25~29세 67.2%로 매우 높았다. 1인 가구 비율은 13.7%였는데, 25~29세와 30~34세에서 더 높았다.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1인 독립 가구를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55.9%였는데 20대까지는 이 비중이 유지되다가 30대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면서 전, 월세에 거주하고 이후 내 집을 마련하는 주택 점유형태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일치한다(박천규·이수옥·손경환, 2009).

[표 2] 분석대상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전체 | 청년 | | | |
|------------------------|------------------|------------------|------------------|------------------|------|
| | | 19~24세 | 25~29세 | 30~34세 | |
| 사례 수(명, %) | 1,793 | 608(19.5) | 601(19.3) | 584(18.7) | |
| 여성 | 48.4 | 45.6 | 48.4 | 50.0 | |
| 평균연령(세, sd) | 32.3(7.5) | 21.6(1.7) | 27.0(1.4) | 32.3(1.4) | |
| 서울시, 광역도시(대도시) 거주 | 45.3 | 41.5 | 51.9 | 46.1 | |
| 배우자 있음 | 38.4 | 1.5 | 10.2 | 38.9 | |
| 자녀 있음 | 33.6 | 1.2 | 5.3 | 26.5 | |
| 건강상태 좋음 | 37.9 | 41.9 | 40.0 | 34.8 | |
| 가구주 | 39.6 | 12.7 | 32.1 | 43.8 | |
| 부모와 동거 | 45.9 | 84.7 | 67.2 | 40.6 | |
| 1인가구 | 13.7 | 10.4 | 17.3 | 19.2 | |
| 자가 거주 | 55.9 | 58.1 | 50.8 | 49.7 | |
| 현재 상태 | 학생 | 21.0 | 58.9 | 25.0 | 8.4 |
| | 비구직 미취업 | 11.2 | 8.7 | 7.2 | 10.8 |
| | 실업 | 6.4 | 6.4 | 12.0 | 6.3 |
| | 임시일용·프리랜서 | 12.9 | 13.5 | 10.3 | 9.6 |
| | 비정규 상용직 | 3.8 | 2.6 | 3.0 | 4.1 |
| | 정규 상용직 | 44.8 | 9.9 | 42.6 | 60.8 |
| 균등화가구소득 평균 (만원, sd) | 273.6 (143.8) | 257.8 (150.2) | 271.9 (141.8) | 291.3 (143.8) | |
| 기준중위소득 60% 미만 | 5.7 | 10.4 | 5.8 | 5.1 | |
| 본인 교육(대학졸업 이상) | 70.4 | 22.2 | 77.2 | 83.9 | |
| 본인 소득 계층 | 상 | 7.3 | 12.2 | 6.2 | 5.7 |
| | 중 | 40.0 | 45.2 | 40.8 | 35.6 |
| | 하 | 52.7 | 42.6 | 53.1 | 58.7 |
| 부모 교육 수준 | 중졸 이하 | 16.7 | 4.5 | 10.0 | 13.3 |
| | 고졸 | 37.5 | 43.9 | 46.2 | 41.6 |
| | 대졸 이상 | 45.8 | 51.6 | 43.8 | 45.1 |
| 부모 재산 수준 | 상 | 11.0 | 18.3 | 11.8 | 10.1 |
| | 중 | 38.5 | 42.6 | 42.9 | 36.0 |
| | 하 | 50.5 | 39.2 | 45.3 | 53.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현재 상태는 19~24세, 25~29세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시기인 25~29세의 경우, 실업자 비율이 12.0%로 전체 실업자 비율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조사시점인 2020년 당시의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구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

부 등 비규직 미취업자는 30~34세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결혼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노동 생애 특성과 일치한다. 정규직 상용자와 고용주인 경우는 44.8%였는데, 19~24세, 25~29세는 9.9%, 42.6%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갖는 청년의 대다수가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구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기준)의 60% 미만인 경우로 측정한 전체 청년의 빈곤율은 5.7%였다. 19~24세는 10.4%로 전체 빈곤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는데,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84.7%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은 부모 가구의 빈곤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인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0.4%였는데, 19~24세는 22.2%로 매우 낮았다. 20대 초반에 대학교에 재학 중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한 결과이다. 휴학과 졸업 유예 등을 고려할 때 20대의 교육수준은 청년 본인의 최종적 획득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소득계층을 분석한 결과, '상층' 7.3%, '중층' 40.0%, '하층' 52.7%였으며, 19~24세의 경우 부모 재산과 유사하게 '상층' 비중이 가장 높고, '하층' 비중은 가장 낮았다. 청년기가 부모 가구에서 독립하지 않고,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역시 실제 본인의 소득계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계층에 따른 생애경험과 불안의 격차는 청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모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16.7%,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37.5%, 대학교 졸업 이상은 45.8%였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은 19~24세 12.2%로 가장 낮았고, 40~44세 31.3%로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의한 부모세대의 교육수준 상향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재산 수준은 '상층' 11.0%, '중층' 38.5%, '하층' 50.5%였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9세 18.3%로 전체 연령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위 연령대별 사회적 불안 인식을 확인하였다. 우선 청년의 성인 이행 과업(교육,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현재 상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 비규직 미취업자, 학생, 실업자의 불안 인식이 높았고, 상용·정규직과 임시일용·비정규직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정적인 상용·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청년도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

4)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9~29세 20대 청년 중 '다음 세대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로, 전체 평균, 60세 이상 32.5%보다 낮았다(통계청, 2019).

하는 비율이 84.1%였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 진입의 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30~34세는 학생인 경우 미취업자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원 등에 진학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한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 청년층의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비율(%)

| 구분 | | 전체 | 19~24세 | 25~29세 | 30~34세 |
|--------------|--------------|------|--------|--------|--------|
| 전체 (n=1,793) | | 85.7 | 83.1 | 87.1 | 87.2 |
| 현재 상태 | 학생 | 89.0 | 87.8 | 85.4 | 93.9 |
| | 미취업 | 93.3 | 89.9 | 98.0 | 90.5 |
| | 실업자 | 86.2 | 88.0 | 92.0 | 81.1 |
| | 임시일용 비정규직 | 83.6 | 78.9 | 88.6 | 85.0 |
| | 상용정규직 | 84.1 | 82.2 | 83.3 | 86.8 |
| 부모동거 여부 | 비동거 | 86.3 | 83.4 | 88.5 | 87.9 |
| | 동거 | 84.0 | 81.7 | 82.6 | 86.1 |
| 자가 여부 | 비자가 | 85.9 | 81.6 | 88.3 | 87.8 |
| | 자가 | 85.5 | 84.1 | 86.3 | 86.6 |
| 혼인상태 | 배우자 없음 | 84.3 | 83.2 | 83.2 | 85.4 |
| | 배우자 있음 | 86.6 | 83.1 | 89.2 | 89.9 |
| 자녀 유무 | 자녀 없음 | 84.6 | 80.0 | 84.3 | 86.9 |
| | 자녀 있음 | 86.7 | 84.5 | 89.1 | 87.7 |

주: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4. 약간 불안하다'와 '5. 매우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은 85.7%에 달했다. 특히 25~29세, 30~34세 여성 청년의 비율은 93.8%, 92.8%로 남성 청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 청년 여성의 높은 우울과 자살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전체 집단과 유사하게 부모가 고졸인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19~24세의 경우 부모가 중졸 이하 저학력인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9~24세 청년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전체 집단 대상 분석과 유사했는데, 19~24세의 경우 부모 재산이 하층인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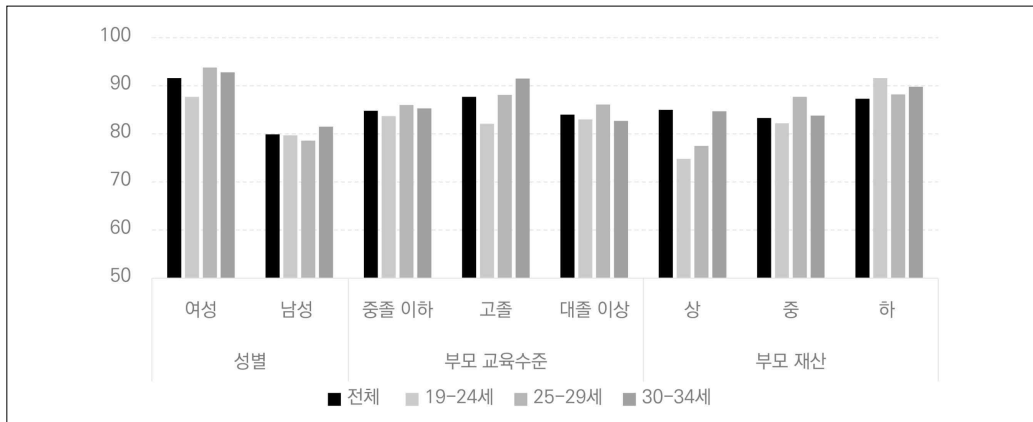
하는 비율이 91.6%로 매우 높았다.

[표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비율(%)

| 구분 | | 전체 | 19~24세 | 25~29세 | 30~34세 |
|--------------|-------|------|--------|--------|--------|
| 전체 (n=1,793) | | 85.7 | 83.1 | 87.1 | 87.2 |
| 성별 | 여성 | 91.6 | 87.7 | 93.8 | 92.8 |
| | 남성 | 79.9 | 79.7 | 78.6 | 81.5 |
| 부모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84.8 | 83.7 | 86.0 | 85.3 |
| | 고졸 | 87.7 | 82.1 | 88.1 | 91.5 |
| | 대졸 이상 | 84.0 | 83.0 | 86.1 | 82.7 |
| 부모의 재산 | 상 | 85.0 | 74.8 | 77.5 | 84.7 |
| | 중 | 83.3 | 82.2 | 87.7 | 83.8 |
| | 하 | 87.3 | 91.6 | 88.2 | 89.8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비율(%)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 사회적 불안

이어서 계층별로 생애 경험의 차이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생애 경험은 생애 주요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과 박탈의 경험 여부로 측정하였다.

[표 5]에서 1990년대부터 다섯 번의 주요 사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37.9%로 그 뒤를 이었다.⁵⁾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 비율은 20대보다 30대인 후기 청년에게서 더 높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후기 청년보다 20대 청년의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5~29세 청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 비율은 63.7%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코로나19가 44.6%, 세월호 24.6%, 2008 금융위기 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어려움의 경우 최근의 경험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20대보다는 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1997 외환위기, 2004 신용카드 사태, 2008 금융위기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2014 세월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사건이 갖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 부모교육 중졸 이하, 부모 재산이 하층인 경우 높았으며, 2004 신용카드 사태와 2008 금융위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도 경향은 비슷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 차이가 다른 경제위기 사건보다 크지 않았다. 1997 외환위기의 경우 부모재산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22.4%p, 2008 금융위기는 14.7%p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10.5%p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4 세월호와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월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의 집단 간 차이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의 차이가 더 컸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과거 사회경제적 사건들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정서적 영향은 하위 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1997 외환위기, 2004 카드대란의 경우 19~24세, 25~29세 청년은 당시 연령이 매우 어리므로 본인이 속한 가족의 경험에 관한 회고이므로 직접 경험보다 정확성이 낮을 수 있으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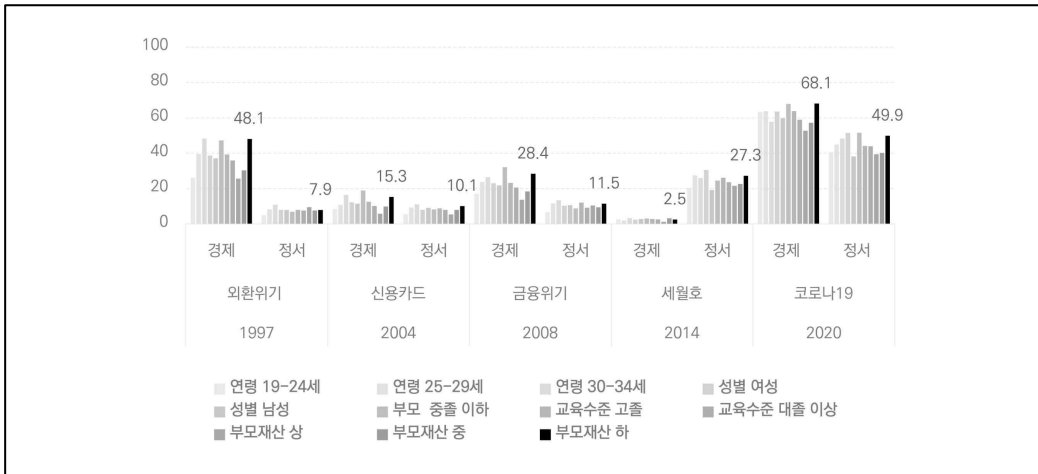
[표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단위: %)

| 구분 | 1997 외환위기 | | 2004 신용카드 | | 2008 금융위기 | | 2014 세월호 | | 2020 코로나19 | | |
|--------------|--------------|------|--------------|------|--------------|------|-------------|------|---------------|------|------|
| | 경제 | 정서 | 경제 | 정서 | 경제 | 정서 | 경제 | 정서 | 경제 | 정서 | |
| 전체 (n=1,793) | 37.9 | 8.0 | 11.8 | 8.6 | 22.4 | 10.5 | 2.6 | 24.6 | 61.6 | 44.6 | |
| 연령 | 19-24세 | 48.3 | 10.8 | 16.4 | 11.1 | 26.4 | 13.4 | 3.3 | 26.0 | 57.7 | 48.3 |
| | 25-29세 | 39.6 | 8.3 | 10.8 | 9.3 | 23.8 | 11.6 | 2.0 | 27.5 | 63.7 | 44.9 |
| | 30-34세 | 26.2 | 4.9 | 8.4 | 5.4 | 17.1 | 6.6 | 2.6 | 20.4 | 63.3 | 40.6 |
| 성별 | 여성 | 38.7 | 8.0 | 12.2 | 8.0 | 23.0 | 10.3 | 2.4 | 30.5 | 63.6 | 51.5 |
| | 남성 | 37.1 | 7.9 | 11.5 | 9.1 | 21.8 | 10.6 | 2.8 | 19.2 | 59.8 | 38.2 |
| 부모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47.2 | 6.9 | 18.9 | 8.2 | 32.1 | 8.8 | 3.1 | 24.5 | 67.9 | 51.6 |
| | 고졸 | 39.3 | 8.0 | 12.5 | 8.8 | 23.2 | 12.1 | 2.8 | 26.1 | 63.8 | 44.1 |
| | 대졸 이상 | 35.9 | 7.6 | 10.2 | 8.0 | 20.6 | 9.2 | 2.6 | 23.6 | 58.9 | 44.0 |
| 부모 재산 | 상 | 25.7 | 9.5 | 5.8 | 5.4 | 13.7 | 10.4 | 1.2 | 21.6 | 52.7 | 39.4 |
| | 중 | 30.3 | 7.6 | 9.9 | 8.0 | 18.4 | 9.4 | 3.2 | 22.6 | 57.2 | 40.2 |
| | 하 | 48.1 | 7.9 | 15.3 | 10.1 | 28.4 | 11.5 | 2.5 | 27.3 | 68.1 | 49.9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3] 개인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정서적 어려움 경험 비율(%)



만 12세 이후 건강, 돌봄, 주거, 교육 영역의 박탈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6], [그림 4]와 같다.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갔다고 응답한 비율(미충족 의료)은 24.0%였으며, 후기 청년보다 20대 청년에게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5~29세 청년은 27.3%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았다. 돌봄으로 인한 시간 제약을 경험한 비율은 22.6%였으며, 후기 청년에게서 가장 높았다. 주거와 관련해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리거나 이사 간 경우는 전체 22.2%로 박탈 경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초기 청년보다 후기 청년에게서 더 높았는데, 20대 청년 다수가 독립 가구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학비 미납 혹은 학업중단 경험은 19.9%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을 확인한 결과, 부모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 모든 박탈 경험이 대졸인 경우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모든 박탈 경험률이 상층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박탈 영역은 교육이었다. 학비 미납과 학업중단 경험의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25%p였다. 주거, 의료 중 미충족 의료 경험의 집단간 차이도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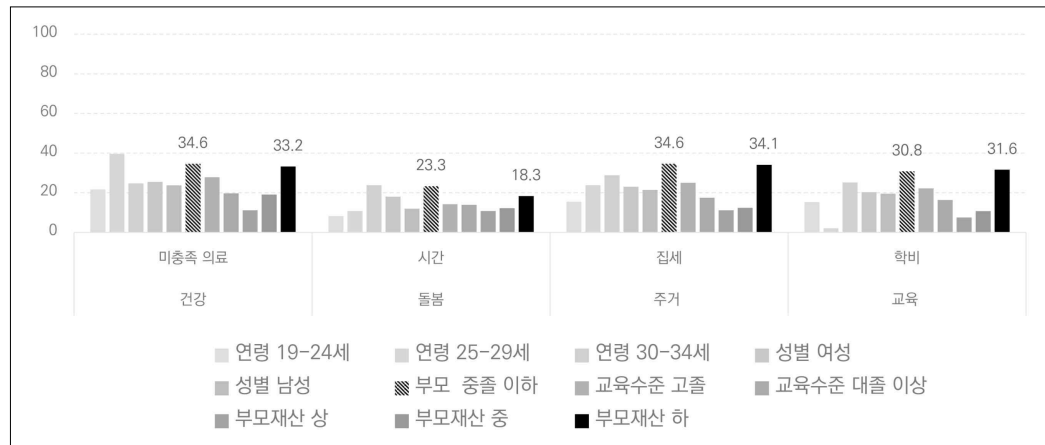
[표 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만12세 이후 박탈 경험

(단위: %)

| 구분 | 건강 | 돌봄 | 주거 | 교육 | |
|--------------|--------|-------|----------|------------|------|
| | 미충족 의료 | 시간 제약 | 집세 연체 이사 | 학비 미납 학업중단 | |
| 전체 (n=1,793) | 24.5 | 14.8 | 22.2 | 19.9 | |
| 연령 | 19-24세 | 21.7 | 8.2 | 15.5 | 15.3 |
| | 25-29세 | 39.6 | 10.8 | 23.8 | 2.0 |
| | 30-34세 | 24.7 | 23.8 | 28.8 | 25.2 |
| 성별 | 여성 | 25.5 | 18.0 | 23.0 | 20.3 |
| | 남성 | 23.7 | 11.9 | 21.4 | 19.5 |
| 부모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34.6 | 23.3 | 34.6 | 30.8 |
| | 고졸 | 27.8 | 14.2 | 25.0 | 22.2 |
| | 대졸 이상 | 19.7 | 13.9 | 17.5 | 16.3 |
| 부모재산 | 상 | 11.2 | 10.8 | 11.2 | 7.5 |
| | 중 | 19.1 | 12.2 | 12.4 | 10.7 |
| | 하 | 33.2 | 18.3 | 34.1 | 31.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비율(%)



이어서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의 중복경험률을 연령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1997 외환위기, 2004 신용카드 사태, 2008 금융위기, 2020 코로나19로 총 4번의 경제적 사건 경험의 횟수를 분석하였으며, 박탈은 4개 영역 중 [표 6]에서 제시한 4개의 박탈 경험횟수를 분석하였다.

[표 7]은 연령과 부모의 재산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횟수와 박탈 경험횟수 분포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으며, 2번 이상은 35.3%였다. 한 번이라도 박탈을 경험한 경우는 45.7%였으며, 2회 이상 박탈을 중복해서 경험한 비율은 22.4%였다. 20대 청년이 박탈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부모의 재산 수준이 상층인 경우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박탈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7] 연령과 부모재산에 따른 주요 사건 경제적 어려움 및 박탈 경험횟수 분포

(단위: %)

| 구분 | 주요 경제적 사건 경험횟수 | | | | | 주요 박탈 경험횟수 | | | | | |
|-------|----------------|------|------|------|------|------------|------|------|------|------|-----|
|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 |
| 전체 | 23.3 | 40.8 | 20.0 | 10.5 | 5.3 | 54.3 | 23.2 | 12.0 | 7.6 | 2.8 | |
| 연령 | 19~24세 | 26.5 | 46.7 | 15.6 | 7.7 | 3.5 | 62.5 | 22.0 | 8.7 | 5.8 | 1.0 |
| | 25~29세 | 22.3 | 37.9 | 23.8 | 11.5 | 4.5 | 54.6 | 22.5 | 11.8 | 8.5 | 2.7 |
| | 30~34세 | 21.1 | 37.7 | 20.7 | 12.5 | 8.1 | 45.6 | 25.2 | 15.6 | 8.7 | 5.0 |
| 부모 재산 | 상 | 36.1 | 40.7 | 14.9 | 5.8 | 2.5 | 73.9 | 17.0 | 5.4 | 2.1 | 1.7 |
| | 중 | 28.1 | 43.9 | 16.0 | 8.4 | 3.7 | 68.0 | 18.2 | 7.8 | 3.6 | 2.5 |
| | 하 | 15.4 | 38.2 | 25.1 | 13.8 | 7.5 | 36.6 | 29.5 | 17.6 | 12.9 | 3.5 |

3) 사회경제적 지위, 생애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

5점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불안을 불안 여부 이분 변수로 전환하여 계층요인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이면 프로비트(probit regression model), 로짓(logistic regression model)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귀속지위에 따라 청년의 획득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획득지위만 투입한 모형, 귀속지위만 투입한 모형,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를 모두 투입한 통합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인이행 과업 관련 변수, 청년의 획득지위를 통제하더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

었다. 획득지위와 귀속지위를 각각 투입한 모형에서 귀속지위와 획득지위 모두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통합모형(6)에서 청년의 획득지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합모형(6)에서 부모 재산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은 8% 높았으며, 본인 소득이 하층인 경우는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으며,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현재 상태가 정규직인 경우보다 학생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연령집단 간 차이는 현재 상태를 통제하면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가 개인이 놓여있는 조건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 획득지위 | | 귀속지위 | | 통합모형 | |
|---------------------|----------|----------|----------|----------|----------|----------|
| | 1 | 2 | 3 | 4 | 5 | 6 |
| 여성 | 0.12*** | 0.12*** | 0.12*** | 0.12*** | 0.12*** | 0.12*** |
| 광역시 거주 (기타 시도거주) | 0.04* | 0.04* | 0.05** | 0.05** | 0.05** | 0.05** |
| 건강상태 좋음 | -0.07*** | -0.07*** | -0.08*** | -0.08*** | -0.08*** | -0.07*** |
| 가족 수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 취업 | -0.03 | | -0.04* | | -0.04* | |
| 현재 학생 | | 0.07** | | 0.07** | | 0.08** |
| 상태 미취업 | | 0.03 | | 0.05 | | 0.04 |
| (정규) 실업 | | 0.02 | | 0.02 | | 0.02 |
| 비정규직 | | -0.02 | | -0.02 | | -0.02 |
| 배우자 있음 | 0.01 | 0.01 | 0.00 | 0.00 | 0.01 | 0 |
| 자녀 있음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 부모동거 | 0.02 | 0.02 | 0.01 | 0.01 | 0.01 | 0.01 |
| 본인 교육(대졸) | 0.02 | 0.02 | | | 0.01 | 0.02 |
| 본인 중 | 0.02 | 0.01 | | | -0.02 | -0.02 |
| 소득(상) 하 | 0.08* | 0.08* | | | 0.02 | 0.02 |
| 부모 중졸 | | | -0.03 | -0.03 | -0.04 | -0.03 |
| 교육(대) 고졸 | | | 0.02 | 0.02 | 0.02 | 0.02 |
| 부모 중 | | | 0.03 | 0.03 | 0.03 | 0.03 |
| 재산(상) 하 | | | 0.10*** | 0.10*** | 0.08* | 0.08* |
| 연령 25~29 | -0.04 | -0.03 | -0.03 | -0.01 | -0.03 | -0.02 |
| (19~24) 30~34 | 0.00 | 0.01 | 0.00 | 0.02 | -0.01 | 0.01 |
| Constant | 0.80*** | 0.74*** | 0.80*** | 0.73*** | 0.79*** | 0.73*** |
| 사례 수 | 1,793 | 1,793 | 1,730 | 1,730 | 1,730 | 1,730 |

주: # p<.10, * p<0.05, ** p<0.01, *** p<0.001

[표 9]는 앞서 분석한 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차이 분석모형에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험과

박탈 경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것이다. 현재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이 청년기 이전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탈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생애경험-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사건 경험 횟수만 투입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으며, 주요 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박탈 횟수를 추가로 투입해 분석한 결과, 박탈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박탈 경험을 통제한 뒤에도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였다.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박탈보다 주요 사건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불안 수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박탈 중복경험과 사회적 불안 인식(Linear probability model)

| | | 주요 사건 중복경험 추가 투입 | | 박탈 경험횟수 추가 투입 | | 전체 통합모형 |
|----------------------------|-------|------------------|---------|----------------|---------|------------|
| | |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 통합모형 |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 통합모형 | |
| 본인 교육(대졸) | | | 0.01 | | 0.02 | 0.01 |
| 본인소득 (상) | 중 | | -0.02 | | -0.02 | -0.02 |
| | 하 | | 0.01 | | 0.01 | 0.01 |
| 부모교육 (대) | 중졸 | -0.04 | -0.04 | -0.03 | -0.04 | -0.04 |
| | 고졸 | 0.03 | 0.03 | 0.02 | 0.02 | 0.03 |
| 부모재산 (상) | 중 | 0.03 | 0.03 | 0.03 | 0.03 | 0.03 |
| | 하 | 0.08** | 0.07* | 0.09** | 0.08* | 0.07* |
| 연령 (19~24) | 25~29 | -0.02 | -0.03 | -0.02 | -0.03 | -0.03 |
| | 30~34 | 0.02 | 0.01 | 0.02 | 0.01 | 0.01 |
| 주요사건 경제적 어려움 (없음) | 1회 | -0.01 | -0.01 | | | -0.01 |
| | 2회 | 0.07* | 0.06* | | | 0.06* |
| | 3회 | 0.08** | 0.08** | | | 0.08* |
| | 4회 | 0.08* | 0.08* | | | 0.07* |
| 박탈 경험 (없음) | 1회 | | | 0.04* | 0.04 | 0.03 |
| | 2회 | | | 0.03 | 0.03 | 0.02 |
| | 3회 | | | 0.03 | 0.02 | 0.01 |
| | 4회 | | | 0.05 | 0.05 | 0.03 |
| Constant | | 0.73*** | 0.73*** | 0.72*** | 0.72*** | 0.72*** |
| 사례 수 | | 1730 | 1730 | 1730 | 1730 | 1730 |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성별, 지역, 혼인상태 등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앞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였음.

5. 주요결과와 함의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과 생애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생애경험-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재산 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생애경험은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12세 이후 박탈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34세 청년 중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은 85.7%로, 대다수 청년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 별로 보면 30~34세와 25~29세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25~29세 집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30~34세는 1997년 IMF 시기에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지위를 획득해야 상황에 코로나19를 경험한 집단이다. 이 집단의 높은 불안 수준은 과거의 경제적 위험과 현재의 위험이 중첩된 결과일 수 있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19~24세 청년 중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6%로 상층(74.8%)보다 높았다. 다른 연령집단에서도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불안 인식이 높았다.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청년 본인의 획득 지위인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를 통제한 뒤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8%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최근 보고되고 있는 여성 청년의 높은 우울과 자살률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밖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대도시의 청년 유입으로 인한 경쟁의 강화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그리고 현재 상태가 정규직인 경우보다 학생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사건에 따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성인기 청년층이 직접적 타격을 받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보다 정서적 어려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주요 영역별 박탈 경험도 부모의 재산 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통합모형에서 부모의 재산 수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박탈 경험을 통제한 뒤에도 청년의 불안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기 이전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층적으로 나

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 인식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85.7%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5~29세, 30~34세 여성 청년의 경우 90% 이상이 불안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년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다. 청년의 높은 불안은 청년기가 갖는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을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 자기중심적인 개인화 세대, 수저계급으로 희망이 좌절된 세대로 프레임화하는 세대론과 우리 사회의 시선은 청년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청년기의 사회적 위협과 불안에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해 왔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청년이 불안세대가 아닌 희망세대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사회가 청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엔데믹에 이은 경기침체는 청년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이행기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협의 보편성과 격차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을 위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일시적인 지원 외에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정책 혁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청년층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적 불안 인식의 근저에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즉 노력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불안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결과, 청년이 위치한 계층적 지위를 반영하는 부모의 재산은 사회적 불안 인식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었다. 부모의 재산은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생애 박탈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해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성인이행기에 놓인 청년이 직면하는 불평등은 청년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부모에게서 전이되는 세대 간 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정책만으로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초기인 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 혹은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가구의 아동, 청소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청년기에 시작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 가구 청년이 스스로 원하는 일을 찾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 청년세대에 집중된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구성원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은 현시점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는 소득,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청년세대에 남긴 상흔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성인기에 경험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성별(여성), 지역(광역시 거주), 건강상태(나쁨), 현재 상태(학생) 등 청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불안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령집단으로 포괄되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청년에게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폭력·폭행 등 강력범죄 및 성범죄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으로 대표되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등 간접경험으로 인한 범죄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후속연구를 통해 청년세대 중 특히 청년 여성의 높은 불안 인식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인 초기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보완하여 사회적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박탈보다 주요 사건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불안 수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주는 사회경제적 사건 이후 사회구성원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위협을 예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것과 더불어 사회 변화와 위협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회보장 혁신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표준화된 생애과정,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의 발생, 그리고 변화하는 인간의 생애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의 격차와 삶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생애 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객관적 불안정을 넘어, 주관적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하여, 청년층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안,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단년도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생애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탈 경험을 회고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변수 간의 엄격한 인과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상관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층과 다른 연령층과의 사회적 불안 인식 비교, 사회적 불안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인적 대응 기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우울, 불안, 수치심, 자살사고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73-896.
- 구혜란, 구서정. (2019). 우울한 청년, 불안한 장년의 나라: 연결망 접근을 통해 본 세대별 마음의 형상(形象). *한국사회학*, 53(2), 253-292.
- 김연아, 정원오. (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0), 334-377.
- 김정숙. (2018).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이행 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4(1), 93-117.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 박미희. (2017).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노동정책연구*, 17(3), 1-44.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민진, 민보경, 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세대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4(4).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 _____.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종훈, 이경재, 이성우. (2018). 서울 시민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19(4), 111-129.
- 박천규, 이수옥, 손경환. (2009). 가구 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171-187.
-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 _____. (2018a).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2018b).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_____. (2022). '생애 전반기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토론문. 2022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 변금선, 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 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 변금선, 이해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우아영, 윤연숙. (2020). 30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의 삶의 경험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1-110.

- 유민상. (2022). 생애 전반기 위협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2022 한국청소년복지학 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공동학술대회.
-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문, 채수미, 차미란, 김효진. (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용호, 이원익. (2022).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339-364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4), 249-274.
-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은석, 안승재, 함선유, 홍백의. (2018).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8(1), 41-74
-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 조혜정, 염동문, 권혁창. (2020). 청장년층 가구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 연령별 비교. 인문사회 21, 11(2), 2091-2102.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 통계청. (2019). 사회조사. 통계청.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London: Sage.
- Blossfeld, H. P. (Ed.). (2008). *Young workers, glob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Comparing early working life in eleven countries*. Edward Elgar Publishing.
- Duncan, G. J., Morris, P. A., & Rodrigues, C. (2011). Does money really matter? Estimating impacts of family income on young children's achievement with data from random-assignment experi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263.
- Duffy, M. E., Twenge, J. M., & Joiner, T. E. (2019). Trends in mood and anxiety symptoms and suicide-related outcomes among U.S. undergraduates, 2007-2018: Evidence from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5(5), 590-598.
- Elder Jr, G. H., & Pavalko, E. K. (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80-S191.
- Elder, G. H., & O'Rand, A. M. (1995). Adult lives in a changing society. in K.S. Cook, Fine, G. A., & House, J. S.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pp. 452-475). Boston, MA: Allyn and Bacon.
- Elder, G. H. (2018).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Routledge.
- Elman, C., & O'Rand, A. M. (2004). The Race Is to the Swift: Socioeconomic Origins, Adult Education,

- and Wage Attainment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23-160.
- Furlong, A. (Ed.). (2009).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 routledge.
- Goldin, C. (1999). Egalitarianism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during the great transformation of American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S6), S65-S94.
- Krahn, H. J., Chai, C. A., Fang, S., Galambos, N. L., & Johnson, M. D. (2018). Quick, uncertain, and delayed adults: Timing, sequencing and duration of youth-adult transitions in Canada. *Journal of Youth Studies*, 21(7), 905-921.
- Liu, C. H., Zhang, E., Wong, G. T. F., & Hyun, S. (2020).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xiety, and PTSD symptomatolog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linical implications for US young adult mental health. *Psychiatry research*, 290, 113172.
- Lui, C. K., Chung, P. J., Wallace, S. P., & Aneshensel, C. S. (2014). Social status attain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7), 1134-1150.
- Lundberg, M., & Wuermli, A. (2012). *Children and youth in crisis: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development in times of economic shocks*. World Bank Publications.
- Mahmoud, J. S. R., Staten, R. T., Hall, L. A., & Lennie, T. A. (2012). The relationship among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xiety, stress, demographics, life satisfaction, and coping styl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3(3), 149-156.
- Marshall, V. W., & Mueller, M. M. (2003). Theoretical roots of the life-course perspective. in W.R. Heinz and Marshall V.W.(Eds.) *Social Dynamics of the Life Course. Transitions, Institutions, and Interrelations*(3-32). New York: Walter de Gruyter, Inc.
- Mossakowski, K. N. (2015). Disadvantaged family background an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s of chronic stress and self-esteem. *Stress and Health*, 31(1), 52-62.
- Settersten, R. J. (2003). Rethinking social policy: Lessons of a life-course perspective. In R. A. Settersten Jr. (Ed.), *Invitation to the life course: Toward new understandings of later life*(pp. 191-224).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 Schroter, R., Jovanovic, A., & Renn, O. (2014). Social Unrest: A Systemic Risk Perspective. *Global Risk Forum April 2014, GRF DAVOS Planet@Risk, Volume 2., Number 2*.
- Van Winkle, Z., & Fasang, A. (2016). Complexity in Employment Life Courses i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Large Cross-National Differences but Little Change across Birth Cohorts. *Social Forces*, 96(1), 1-29.

Abstract

Disparities in Perception of Social Insecurity among Young Adults: Focusing o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Experience

Geumsun Byun* · Hyerim Lee**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ived disparities in social insecurity among young adults and explor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t. The research confirms variations in the perceived levels of social insecurity based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experienc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Problem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 2021, this study found that among young adults aged 19-34, 85.7% perceived a higher level of social insecurity. This percept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specific groups, including those aged 30-34, 25-29, women, individuals residing in urban areas, and stud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arning status of young ad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social insecurity levels were observed based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s with lower parental wealth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socially insecure. Furthermore, the study revealed that increased exposure to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disruptive life experienc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reinforce social safety systems for young adults in early adulthood, as well as to address the restoration of class ladders. Such measures are crucial in tackling the current anxiety crisis.

Keywords: young adult,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social inequality, young adult policy

◆ 2023. 4. 30. 접수 / 2023. 6. 6. 1차수정 / 2023. 6. 27. 게재확정

* Seoul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gsbyun@si.re.kr)

**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in Social Welfare (hyerimm@gmail.com)